

희
망
을
가
꾸
는

기 금 보 물



(우)03035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80 GS남촌리더십센터 신관 3층
Tel 02-3704-0133 Fax 02-3704-0139
www.jkhufoundation.or.kr

“9% 확률의 기적”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미국의 한 통계 전문가는 본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고작 9%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세를 꺾어 놓는 숫자였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은 확률로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열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듯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했고 16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9%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운도 따르는 법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9%라고 주어진다면 노력할 의미를 잃어버린 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보여 주었던 기적은 9%의 확률이 아니라, 100%의 노력과 그 노력에서 비롯된 확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2022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유례없는 대형 산불,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덧 《디딤돌》이 열여섯 번째 발간을 맞이했습니다. 남촌재단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뛰듯이 그간의 어려움을 힘차게 뛰어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촌재단을 아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계묘년(癸卯年) 새해
남촌재단 이사장 허창수



남촌재단은 소외계층 자립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남촌재단은 지난 2006년 허창수 GS 명예회장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故 허준구 명예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재(私財)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입니다.故 허준구 명예회장은 평생 기업경영 외에는 한눈을 팔지 않은 창업 1세대의 경영인으로, 생전에 근검절약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남촌재단은故 허준구 명예회장의 아호를 딴 그 이름처럼 이웃사랑의 뜻을 이어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 미션

‘희망을 가꾸는 디딤돌’

남촌재단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향의 마음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로 도약하게 이끄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주요 지원 사업

- 2022. 12. 27 1개 대학 남촌장학금 전달
- 2022. 12. 14 저소득 농아인 부식(쌀) 지원
- 2022. 12. 12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진 구호성금 지원
- 2022. 12. 12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
- 2022. 11. 25 ‘소외계층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지원(GS건설 공동)
- 2022. 11. 10 대한적십자사 보호종료 아동 모금 지원
- 2022. 11. 10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박물관 지원
- 2022. 10. 25 무료병원 의료기기 지원 : 라파엘클리닉
- 2022. 10. 2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발전기금 지원
- 2022. 10. 25 서울대학교병원 의료 연구기금 지원
- 2022. 10. 11 보호종료 아동 건강자립 사업 지원
- 2022. 09. 23 대한적십자사 바자회 후원
- 2022. 09. 07 하반기 ‘희망의 놀이터 시공’ 사업 지원(GS건설 공동)
- 2022. 08. 25 여름 수해 구호 성금 지원
- 2022. 08. 2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남촌드림클래스) 지원
- 2022. 08. 25 1개 학교 발전기금 전달
- 2022. 07. 11 1개 대학 남촌장학금 전달
- 2022. 06. 2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료비 지원
- 2022. 04. 26 FC서울 다문화 유소년 축구 장학지원
- 2022. 04. 12 한국키비탄 장애 어린이 대잔치 후원
- 2022. 03. 25 상반기 ‘희망의 놀이터 시공’ 사업 지원(GS건설 공동)
- 2022. 03. 25 ‘포근한 희망 상자’ 저소득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사업(GS건설 공동)
- 2022. 03. 25 고려대학교의료원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봉사 지원
- 2022. 03. 15 강원 경북지역 산불 재해 구호 성금 지원
- 2022. 03. 15 우크라이나 구호 성금 지원
- 2022. 03. 10 1개 대학 남촌장학금 전달
- 2022. 01. 25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인공와우 환우 행사) 지원
- 2022. 01. 20 ‘디딤씨앗통장’ 사업 지원

♥ 비전

건강을 위한 디딤돌(Most Empowering Model)

다각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빈곤으로 인해 치료 가능한 질병과 사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과 아동, 그리고 산재 후 재활자들을 위한 모범적 후원자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배움을 위한 디딤돌(Most Innovative Model)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장학 및 교육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배움으로부터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모범적 멘토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자립을 위한 디딤돌(Most Productive Model)

체계적인 자립지원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절대적인 빈곤상황에서도 독립적 삶을 꿈꾸는 자활대상자들과 장애인들의 모범적 동행자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연혁

- 2019. 03. 29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 2016. 08. 29 기획재정부 ‘성실공익법인’ 지정
- 2013. 12. 31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 2009. 05. 11 남촌재단 CI 특허청 상표 등록
- 2008. 08. 14 남촌재단 홈페이지 개설
- 2008. 02. 20 남촌재단 CI 개발
- 2008. 01. 24 재단법인 ‘남촌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07. 12. 27 재정경제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
- 2006. 12. 21 재단법인 남촌복지재단 설립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소외계층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 지원

남촌재단은 지난 2007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합춘후원회, 서울성모병원(종료)에 의료비와 의료 서비스(병원학교, 환우 문화센터, 의료교육)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남촌재단은 재단 설립 이래 희귀난치성 질환과 인공와우를 주축으로 특정 질환군에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타 질환의 지원이 절실한 사례가 반복되고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보험 가입이 일반화되면서 의료지원에서 탈락하지만 치료가 부족한 저소득층이 발생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남촌재단은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지원하는 질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장기질환 환아가거나 사보험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 지원토록 하는 등 의료지원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특정 질환 환자의 지원이 더욱 어려웠던지라 이번 변화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촌재단은 의료비 지원 외에 2년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지만, 2022년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돼 활력을 되찾고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병원학교인 '남촌드림클래스' 지원도 잊지 않고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에서 매월 진행되는 '혈액암 환우 문화공연' 후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감염관리 물품과 대형 담요 지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주요 협력병원 발전기금 및 의료 연구기금 지원

남촌재단은 협력병원에 의료비 외에도 병원 발전기금과 의료 연구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의료 취약지역인 서울 서남권의 유일한 3차 상급병원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재단과 의료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촌재단은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관 건립에 쓰일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발전에 도움을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한 분야인 파킨슨 질환 연구 지원에 이어, 국내 최초 심장수술을 시작해 지난 30년간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 의료 연구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의료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고려대학교의료원에 의료지원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무료병원 의료기기 지원



남촌재단의 대표적 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무료병원 의료기기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절실했습니다. 2022년에는 라파엘클리닉의 성북구센터와 동두천 진료소에 의료용품 및 검체 보관을 위한 의료용 냉장고, 겨울철 외부 대기 환자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천막 등을 지원했습니다.

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한 장학금 지원, 국내외 대학 교육 및 연구 발전기금 후원 등 든든한 조력자 역할

남촌재단은 매년 국내 2개 대학을 대상으로 남촌장학기금을 기부하고, 그 운영 수익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1~2학기에 걸쳐 26명의 학생에게 남촌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411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남촌재단에서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육 투자의 하나로 국내외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발전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재난 지원 및 구호활동 성금 지원

2022년에는 국내외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유독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남촌재단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을 통해 의료지원 성금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임시보호소와 구호물품 전달 등 구호활동을 위한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시안주르 지역에서 규모 5.6의 강진과 1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7천 명 이상의 이재민과 4천여 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를 통해 인도주의적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강원과 경북지역에 축구장 면적 8,500여 개에 이르는 면적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최대 피해 규모로 남촌재단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과 자연을 복원하는 데에 쓰일 성금을 보냈습니다. 또한, 참혹했던 2020년 수해 시 복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수해민을 위한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홀로서기 사업 지원

남촌재단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보호종료 아동의 홀로서기를 돕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가 된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회적 절벽에 마주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식비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지역별로 추천받은 약 200여 명의 청년들에게 밀키트를 지원하고, 멘토링을 통한 결연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지원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종료 아동 지원 사업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선정해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국가에서 1:2 매칭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남촌재단에서는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동참하고자 2016년부터 대상 아동들의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촌재단 허창수 이사장의 1년 치 국민연금 수령분을 매년 기부받아 디딤씨앗통장사업에 지정 기부하고 있어 더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FC서울 다문화가정 자녀 축구교실 지원

남촌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FC서울 축구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년 약 40명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축구교실 연간수업료와 축구용품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C서울 다문화가정 자녀 축구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는 약 2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GS건설과 다양한 공동사업 지원

남촌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재단, GS건설과 공동으로 소

외가정에 김장김치와 난방비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GS건설 공동사업 중 하나인 공부방 사업은 진행이 어려웠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희망의 놀이터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희망의 놀이터 지원 사업은 매년 시설과 복지관 등의 열악한 놀이터를 안전하게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40여 곳이 희망의 놀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남촌재단에서는 또 매년 연말이면 GS건설 임직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저소득층 가정 1,004가구에 가구당 20kg의 김치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직원이 다 같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또다른 GS건설 공동사업인 희망의 놀이터 사업 기관과 방과 후 교실 기관 등에 김치를 전달하면서 더욱 뜻깊은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GS건설, 굿네이버스와 함께 위기가정 여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 등 여성 생필품 키트를 담은 '포근포근 희망상자'를 2022년에도 전달했습니다.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지원돼 학생들에게 경제지 지원 뿐 아니라 안정감도 함께 선물할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대잔치



국제키비탄은 장애아동을 위한 사회 봉사단체로 남촌재단은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10년 넘게 후원해 왔습니다. 남촌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키비탄 어린이날 대잔치 행사를 가을에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은 정성을 보냈습니다.

FC서울, FC서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홈경기 진행

- 2022년 5월 20일 보도

FC서울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FC서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홈경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FC서울은 5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2' 14R 경기를 진행한다. FC서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팬 프렌들리 이벤트와 더불어 뜻깊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어버이날 홈경기에는 신입 선수단 부모님 초청하여 그 의미를 더했고, 스승의 날 홈경기에는 오산학원과의 협약 10주년을 기념해 오산고등학교 선생님 초청을 통해 'FC서울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FC서울은 다시 한번 특별한 'FC서울의 가족'을 초청한다. 남촌재단,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등의 후원을 통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FC서울 다문화 축구교실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스카이박스 경기 관람, 선수단 워밍업 입장 시 하이파이브 행사 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스포츠공화국 이찬우 기자

대한적십자사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및 산불피해 구호성금 남촌재단, 우크라이나 지원·국내 산불 피해복구에 1억 기부

- 2022년 3월 15일 보도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러시아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현지 구호활동에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13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우크라이나에 남은 피해자들을 위한 식료품과 폴란드 등 인접국으로 피난한 이들을 위한 담요, 위생물품 등을 사는 데 쓰인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협력한다.

한적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10만 프랑(한화 약 1억3천만원) 규모를 1차로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모금 캠페인에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45억 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울러 한적은 남촌재단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남촌재단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 국민과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경북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남촌재단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06년 설립한 재단이다.

연합뉴스 박수운 기자